

“5·18 세계에 알린 노벨상...하늘에 있는 아들도 기뻐할 것”

소설 '소년이 온다' 주인공 문재학 열사 어머니 김길자씨

“우리 (문)재학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줘서 기쁘기도 하고, 참 고맙고, 슬프기도 하지요...”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모티브가 된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85)씨는 지난 11일 오전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산화한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소설을 썼던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됐다는 기쁨, 문 열사의 아버지가 최근 세상을 떠나 기쁜 소식을 함께 할 수 없다는 복잡한 심경이 얽혀 있는 뜨거운 눈물이었다.

문 열사는 한강 작가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소년이 온다'의 모티브가 됐던 실존 인물이다. 소설에서는 주인공 동호로 등장한다.

문 열사는 1980년 5·18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매일 도청에 나가 시민군 시신 수습 등을 도왔다.

김씨의 만류에도 ‘(양)장군이(초등학교 동창)가 죽었다. 이렇게 놔두고는 못 간다’며 27일 새벽까지 도청을 지켰다. “계엄군이 학생들은 손을 들면 안 죽인다고”며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를 뿌리쳤다.

하지만 27일 문 열사는 전남도청 내에서 결국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과정에서 총탄에 맞아 산화했다.

문 열사는 당시 친구인 안종필 열사와 나란히 2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문 열사는 목 부위, 안 열사는 복부에 총을 맞고 앞도리 채 사망했다.

80년 전남도청 사수하다 산화

소설에서 ‘동호’로 그려져

책 읽으며 가슴 아파 눈물 쏟아져

17세 아들 억울함 풀려 투사로

“5·18 진상 세계에 알려져 감사”

두 열사의 사망 당시 주변에 총기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빵 조각만이 떨어져 있었다.

계엄군은 문 열사의 시신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망월동에 매장했다. 광주시는 문 열사를 ‘폭도’로 지칭하고 유가족에게 위로금조차 주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남편 문건양씨와 함께 ‘폭도’로 몰린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민주 투사로 나섰다. 40년 넘도록 진상규명 투쟁을 이어온 끝에 문 열사의 아버지 건양씨는 2022년 별세했다.

소설 후반부에서는 동호의 어머니 시선으로 떠난 동호를 그리워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김씨의 마음 속 이야기를 오롯이 글로 담아낸 것이다.

김씨는 지난 10일 밤 9시경 TV로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갑고 기쁘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말했다.

그동안 자신도 문 열사의 아픔과 진상 규명을 위



소설 '소년이 온다' 등장인물의 모티브인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씨가 지난 11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집에서 '소년이 온다' 책을 읽고 있다.

해 투쟁을 해 왔었는데, 한강 작가의 도움으로 전 세계에 진상이 알려지게 됐다며 더없이 감사하다고 했다.

노안 때문에 글을 읽기 어려운 김씨는 아직 '소년이 온다' 책을 끝까지 읽지 못했다. 남편 건양씨가 생전에 한 구절씩 책을 읽어주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아파 눈물을 쏟고는 했다고 김씨는 회상

했다.

“매일 밤 아버지와 어머니 품 사이로 파고들어 잠 자곤 했던 막둥이었어요. 부모를 위해 돈을 벌겠다고 인문계고를 포기하고 스스로 상고를 골라 진학하는, 속이 깊은 아이기도 했지요. 그런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그 이후 살림도 팍팍하고 사방으로 목소리를 내고 다녔어요. 우리 재학이 내놓으라

고, 거여이 살려내라고 목을 놓아 울부짖었어요.”

김씨는 5·18로부터 4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막둥이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매일을 살고 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속에서 묘사됐듯, 문 열사의 중학교 학생증 사진을 오래 지갑 속에 넣어 두고 틈틈이 꺼내 ‘재학아, 재학아’ 불러 부는 것이다.

하지만 벌써 여든 중반의 나이에 접어든 김씨는 건강마저 성치 않다. 수년 전 낙상 사고를 당한 이후 고관절을 크게 다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까지 치렀고, 몇 년에 걸쳐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김씨는 “약이 있다 일어나는 게 힘들지, 서서 걸어다니는 건 아직 괜찮다”며 해마다 아들을 만나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가고 있다.

김씨는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5·18을 왜곡·폄하하는 세력들에게 반드시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4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곡·폄하로 유족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고 있는 이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란다는 마음에서다.

김씨는 “한강 작가의 소설이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지난 등 왜곡 세력들에게 ‘진실은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일깨워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또 하늘에 있는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할 것이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재학아, 네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온 결과가 세계로 퍼지고 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도 편히 잠들고, 친구들 만나서 같이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우리 재학아...”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책 순식간에 동나...중고나라엔 ‘초판 사인본’ 70만원 올라와

서점가·중고거래 사이트 한강 신드롬

‘한강의 열풍’이 거세다.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베스트셀러는 모두 한강의 책들로 채워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라는 타이틀과 한강 작가 인기와 맞물려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서점가 열풍 =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11일부터 13일까지 광주시 서구 광천동의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 영풍문고에는 모든 한강 작가의 작품이 ‘품절’된 상태였다.

영풍문고 광주종합터미널점에서 마련한 한강 특별 매대에 놓인 책들은 모두 팔려 텅 비어있었고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책을 찾기 위해 서점 곳곳을 살펴보는 시민들도 있었다.

영풍문고 광주종합터미널점 관계자는 “수상 발표 이후 13일 현재까지 한강 작가의 저서 재입고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통 화요일에 입고되는데, 이마저도 책의 수요가 높아 얼마나 들어올지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 알라딘 중고서점과 총장서점, 목포시 상동의 영풍문고, 교보문고 상무점 역시 한강 도서 재고가 남아있지 않았다. 수상 기념전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 영풍·교보문고 등 책 품질

베스트셀러 1~10위가 한강 작품

책 판매 수백배 늘고 기획전도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을 통한 온라인 구매를 하더라도 16~17일부터 출고가 가능해 실수령 날짜가 늦어지고 있었다.

같은날 교보문고에 따르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 직후부터 12일까지 3일간 책 판매는 전일 동기간(7~9일) 대비 910배 늘었다. 10일 오후 8시부터 13일 오후 12시까지 모두 26만 부가 판매됐다.

발표 이후부터 3일간 누적 판매 순위는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순이며 eBOOK 순위도 동일했다. 특히 외국인 독자와 번역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외서 판매순위에서는 ‘The Vegetarian’ 판매가 높았다.

교보문고는 홈페이지에서 한강 작가 작품을 모아 소개하는 기획전을 진행 중이다. 11일 예스24에 따르면 노벨문학상 수상 직후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에서 10위까지 모두 한강의 책들이 차지했다. 또한 수상 발표 다음날 11일 종합 베스트셀러 10위권에

모두 한강 책 5권이 올랐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11만8000부가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표작 ‘소년이 온다’는 수상 전일 대비 784배, ‘채식주의자’는 696배, ‘작별하지 않는다’는 3422배 판매가 늘며 한강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예스24도 홈페이지에서 ‘한강’ 출간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획전을 열고 있다.

◇웃돈 중고거래까지 =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니 웃돈 주고서라도 구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서점에서도 일찍이 한강 책이 모두 팔려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웃돈을 주고서라도 한강 책 소장을 위해 초판본 구매를 하려는 이들이 있다.

인터넷 중고 플랫폼 등에서는 한강의 책을 소장하기 위해 웃돈을 얹어 구매하겠다는 소비자들도 있고, 초판에 사인까지 담겨 있는 책을 최대 50배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날 오후 인터넷 중고 플랫폼 ‘중고나라’에는 ‘한강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 초판 사인본’이 판매가 70만원에 올라왔다. 한강의 산문집이자 CD가 수록돼 있는 책으로, 판매자는 ‘사용감이 있으나 CD는 미개봉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당 도서는 2007년 1판 1쇄 발행된 책으로 한강의 사인도 수록돼 있었다.



1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서점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작품들에 대한 품질을 알리는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외 ‘한강작가님 대표작 세 권 일괄 판매’를 한다며 한권당 11만원에 판매하거나 2000년 발행된 ‘내 여자의 열매’를 10만원에 파는 등 책 원가의 배 이상에 달하는 비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반개장터에서는 ‘소년이 온다’ 10주년 특별판이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판매되고 있었다. 수배를 호가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소장’을 위해 비싼 값에도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다.

판매글 뿐 아니라 구매글도 넘쳐났다. ‘한강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초판 1쇄본 20만원에 구입하

고 싶습니다.’ ‘소년이 온다’ 10주년 특별판을 20만원에 구입하고 싶다’는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정가가 1만 5000원인데 비해 10배가 넘는 웃돈을 주고 구매하겠다는 것이다.

‘채식주의자’ 신간은 9000원부터 2만원까지 비교적 저렴하게 팔렸지만 나무가 그려진 갈색 표지의 구판 ‘채식주의자’는 절판돼 서점에서 구매할 수 없다는 이유로 더욱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